

‘글로벌 병원’ 도약하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힐링’을 넘어 ‘힐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 여파로 병원들 역시 의료진과 첨단장비의 우수성, 친절서비스를 넘어 보다 나은...

산림 70% 전원도시에 자리... 친환경 첨단의료 고객만족 ‘옴’ 병상수 대비 암수술 전국 1위·관절분야 명성... 해외환자들도 몰려 국립대병원 최초 JCI 획득, 안전·친절 국제적 인증



화순전남대병원 국훈 병원장

자연속에서 숨쉬는 병원... 치료 넘어 힐링으로

△암·관절 치료법 탁월=협진 시스템 각광=광주 도심에서 20여분 거리에 있는 화순전남대병원(병원장 국훈)은 국내에선 유일하게 인구 7만여명의 군단위에 자리한 상급종합병원이다.

700여 병상을 갖춘 암과 관절분야 특화병원으로서, 2000여 병상을 가진 서울의 삼성·아산병원 등에 비해 병상수 대비 수술건수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2004년 4월 개원 당시부터 획기적인 협진시스템과 최첨단장비를 도입했다. 한 환자를 여러 진료과 의사가 모여 진료하는 시스템은 서울 유수 대학병원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기도 했다.

관절분야는 국내 대학병원 중 최초로 로봇과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인공관절수술 등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미국 특허를 획득한 윤택림 교수의 ‘고관절 최소절개 수술법’은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이 적어 세계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JCI 국제 인증 ‘안전보건 서비스 옴’=화순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최초로 2010년 JCI(국제 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을 획득했다.

JCI 인증은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의료기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보증수표다. 환자가 병원에 들어드는 순간부터 퇴원까지 전 과정의 안전성과 치료의 적절성, 의료서비스 등을 1218개 항목에 걸쳐 세밀하게 평가받는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올해 전국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는 ‘안전보건 서비스’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환자 심신치유 ‘돌보이’=힐링 프로그램도 운영=암환자에게 수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심리적 안정이다. 암이란 병과 싸울 때에는 치료 못지않게 마음과 몸의 장기적인 치유과정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뒤쪽에 조경수 수만그루와 야생화 수만본을 심어 ‘치유의 숲’이라는 돌레길을 만들었다. 국내 병원 중 유일하게 대규모로 조성된 ‘치유의 숲’은 피톤치드가 풍부하게 분비되는 편백나무 등이 가득해 심신 치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투병중인 환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로와 실의,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 문화감성에 도움이 되는 음악과 미술전시회, 웃음치료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의료진의 해외 관절질환 환자 수술 장면.

화순전남대병원 의료진의 해외 관절질환 환자 수술 장면. 화순전남대병원은 해외환자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외국 유명병원들과 MOU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료관광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외국 유명병원과 잇단 MOU-해외서도 ‘입소문’=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 미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등지의 해외환자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외국 유명병원들과 MOU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료관광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JCI인증 받은 안전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와 편안한 휴양지 같은 환경에 만족한 입원환자들의 적극적인 추천도 한 몫하고 있다.

또 개원 8년만에 ‘한국 의료계의 신화’로 꼽히는 화순전남대병원은 미래 성장동력인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주축으로서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고 있다.

안세포를 찾아가 제거하는 박테리아군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으로의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의료봉사나 나눔활동 등 사회공헌사업 또한 활발히 펼치고 있다. 대도시와 차별화된 장점으로 수도권과 먼 지역 약점을 극복해낸 화순전남대병원 ‘자연속의 첨단의료, 환자 중심, 세계 중심’의 핵심가치 아래 글로벌 일류병원으로 준비하려는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늦가을·겨울에 주의해야 할 피부병

조선대병원 17일 ‘건선 바르게 알기’ 시민강좌

조선대병원 피부과(과장 신봉석)는 ‘세계 건선의 날’을 기념해 ‘건선 바르게 알기’ 주제로 시민강좌를 연다.

오는 17일 오후 2시에 병원 2층 하중현 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시민강좌는 ▲건선의 이해(최지호 교수, 울산대병원 피부과) ▲건선 동반질환:건선관절염(김윤성 교수, 류마티스 내과) ▲건선 치료제(1):국소 치료 및 자외선 치료(신봉석 교수, 피부과) ▲건선 치료제(2):전신 치료(이승철 교수, 전남대병원 피부과)를 주제로 열린다.

건선은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 있고, 경계가 뚜렷하며 크기가 다양한 붉은색의 구진과 발진이 전신의 피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병이다. 늦가을이나 겨울에 처음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가벼운 건선 증상이 크게 악화된다. 문의는 피부과 (062-220-3130)로 연락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포도주 하루 1잔, 유방암 생존율 높여

10년내 사망위험 20%→16%

포도주가 유방암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의과대학의 폴 파로아(Paul Pharoah) 박사가 유방암 환자 1만3525명을 대상으로 15년에 걸쳐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유방암 환자가 포도주를 중간 사이즈의 잔(175ml)으로 매일 1잔씩 마실 경우 10년 안에 사망할 위험이 20%에서 16%로 평균 약 20%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주를 매일 중간 크기 잔으로 반잔 씩 마실 경우는 사망위험이 20%에서 18%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 유방암 환자들은 이러한 효과가 다소 강하게 나타났지만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는 다소 약했다.



나타난 반면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는 다소 약했다. 이 연구 결과는 리버풀에서 열린 영국국립암 연구소(NCRI)의 암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 /연합뉴스

“닭·오리 축사 출입 후 꼭 샤워하세요”

질병본부 AI 예방수칙 권고

질병관리본부는 7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수칙을 발표했다.

예방 수칙에 따르면 우선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사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축사에 들어가거나 가금류의 분비물을 만질 때 마스크나 장갑 등을 사용하고, 축사에서 나온 뒤에는 샤워로 몸을 씻어야 한다.

기타 닭이나 오리 가금류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면 AI 감염이 의심되는 만큼 관할지역 수의당국에 신고하고, 농장에는 가금적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연합뉴스

일반인의 경우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유의하고 닭·오리·계란 등은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조리해 먹는 것이 좋다. 해외 AI 발생지역 방문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부터 농림수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함께 AI 관련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작업 등에 투입될 대응요원들에게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다.

또 본부는 AI 발생과 인체 감염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복을 보건소 등 일선기관에 배부했다. /연합뉴스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상가,단독주택,원룸,모델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남평 강변도시를 주목하세요! 투자.. 지금이 기회!! 혁신도시 보다 저렴한 분양가! 광주시 남구와 공동학군!

이지공인중개사 팝니다..토지,전답,임야등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밤나무밭 1만평 P당 3만원 \*광주 신기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194P P당390만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화동 홈플러스인근 병원, 사무실 적합 \* 4~5층 각 130평 \* 6층 110평

가은 공인중개사 급 구 ☆전남지역☆ 영업양여장 (폐업전 포함) 잡종지 즉시 매입가능!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